

시론

佛門이 표발인가

일찍이 인도 전역을 통일한 아쇼카왕은 무력의 승리는 참다운 승리가 아니라고 했다. 정법의 승리가 참으로 승리라 했다. 인도 제국을 통일한 아쇼카왕의 말을 자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

대선후보를 앞다투어 방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에 날 뜨기 임박하여 불과 30여일 남짓 두고 있다. 처음에는 대선출마로 못미암아 그 구도가 자못 흥미로웠고 그들의 거동도 만만찮은 행보를 보여왔다. 한 표의 향배를 수습하기 위하여 기상천외한 작태를 보였다. 남대문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어촌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자기인상을 부추

고려고 TV에 얼굴을 빙여왔다. 허나 그도 목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에의 주자라하여 사찰에 출입하는 행태가 그 무엇보다도 사찰에 예교로써 방문의 허락을 받은 주자도 있지만 그저 절을 찾아가면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려는 계산으로 출입한 사람도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누가 어느 곳에 간 다하면 여기에 질세

라 나도 꼭 참석하여야 한다는 소 망적 심심마져 발휘하고 있으니, 사천왕도 눈을 부라릴 것이다. 어떤 불군이 어디서 왔는가. 왔으면 소종래(所從來)를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뉘꼬" 정도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뉘꼬가 무엇입니까" 하였다면 절에 스님을 찾아온 것이 천리현격이 아닌

가. 그래도 풍도사 정법전(正法殿) 방안에 무수한 정객이 예방하였으니 그들은 무엇때문에 왔고, 무엇을 얻으려고 천천하였는가. 정법주(正法主)는 웃음만 웃고 묵묵부답이었다. 왜 자만미소로 불응대 하였을까. 아직 속물의 때가 가서 지지도 않는 자에게는 묵비대처하는 것이 최상승의 가르침이 아닌가.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는 자들에게 달의 환한 빛을 손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 손가락이 있어야 부표를 하니가 손만 보았는지 모른다. 아니 그들의 계산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제와서 달을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느냐, 내

게 저 손가락이 필요하다. 저 손가락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모든 손가락이 나에게 찍는 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일까. 이 손가락은 당신의 손가락이 아니요, 개개인의 손가락이니 당신에게 돌려주고 장담하지 마시오.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내재하고 있으니 이 불성은 부처다운 주자에게 갈 것이니 어찌 함부로 일주문을 들어서고 사천왕문을 나서는가.

《법광경》에 이러한 법문이 있다.

왕이나 대신, 관료들이 그 자리에 오래머뭄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 일찍이 보살계를 받은 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시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왜일까. 보살계를 받은 자만이 보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냥 높은 자리에 오르면 증심만이 가득하여 다스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눌림을 하기에 꼭 보살계를 흡수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주자들이 자비심을 베풀어 환대의 인사를 드리는 것은 불법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장차 그들로부터 또다른 억압을 받을 것이다. 가리왕

은 사지공양을 드림도 불법을 위한 공양이었다. 우리는 부처님을 위하여 정법의 공양을 올려야 한다. 정법공양의 의미 일러주자

정법의 공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불칠죄법(不七罪法)이다. 의회 정치, 상하존경, 정법존수, 효순부도, 종교봉배, 윤리고양, 사문존수 등이 일곱가지가 잘 이행 준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불칠죄법의 원칙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는 것은 고승도치가 비단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정법의 길을 일러주지 않고 내방자를 환대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닌가.

《금강경》에 말씀하셨다.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는 것은 사된 길이요, 여래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모양이나 소리로서 불교를 향하는 지 몰골에 부처님이 정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할(佛喝)을 던져야 할 것이다.

목 정 배 (동국대 교수·불교학)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열린마당

항통사지·미륵사지 복원

항통사지와 미륵사지 복원문제가 교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지의 복원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복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이미 오래전부터 개진돼 왔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불교계 공약사항으로 두 사지 복원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선공약을 내건 두 정당과 조계종 총무원, 학자, 문화재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중단도 사지조사등 노력

해창(조계종 총무부장) 폐사지를 복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중단적 속원 사업이다. 때문에 중단에서는 반대하게 분포된 사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불교사원지>를 펴내기도 했다. 중단에서는 폐사지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항통사와 미륵사의 복원문제가 세간의 화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앞다시피 대선후보들이 불교계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때문이다. 신라불교를 상징하는 항통사와 백제불교를 상징하는 미륵사지의 복원 그 자체는 우리시대 문화의식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러한 교계의 속원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공약 천명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관계없이 그 공약이 실현 될 수 있다면 중단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분열의 시대에 화합상징

고흥길(이회창총재 대외협력특보) 신한국당의 이회창총재가 항통사와 미륵사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낮은 정치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겪고 경제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이다. 항통사와 미륵사는 경주와 익산이라는 상반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지만 이 두 사찰을 건립한 장인은 한사람이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사람의 장인에 의해 신라와 백제에 건설된 사찰은 결국 지역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삼국통일이라는 통합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민족과 문화는 결국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역사적 유물인 것이다.

지금 우리시대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21세기 선진복지국가를 창조하려면 그 힘의 원천을 밖에서 찾으면 안된다. 바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총재는 이러한 의미에서 '불자만의 속원사업이 아닌 민족통합의 사상적 원동력'을 건설하기 위해 항통사지와 미륵사지의 복원을 약속한 것이다.

전통문화 복원 '국민역량'

조성준(국민회의 연동회 간사) 21세기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대이다. 과거 정치·군사의 힘을 경제와 문화가 대신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은고이직신 하

는 것은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민족적 국가적 영량의 핵심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항통사와 미륵사는 삼국유사에서 이른 바와같이 민족의 혼이 깃든 당시로서는 세계를 의미하는 동아시아를 상징한 웅대한 민족영원의 표상이었다.

67년 여름 분황사를 찾던 길에 옛 항통사터 좌대석에 주장자 쥘고 앉아 조시던 노스님이 지금도 선경같이 떠오른다. 또한 달밤에 찾았던 미륵사지의 고적역에 백제천년의 꿈이 지금도 먼먼먼 이어져 오고 있음을 사무치게 느꼈던 것이 바로 잊지못한 것이다.

남북민족의 대화합과 북방진출의 역사적 대전운기에 항통사와 미륵사는 마땅히 고증, 복원되어야 한다.

"차라리 21세기 명찰 짓자"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

항통사는 삼국통일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한 중요한 사찰이다. 현재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항통사의 복원을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있으며, 불교계도 과거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중흥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있다. 정부나 불교계가 엄청난 재원을 들여 항통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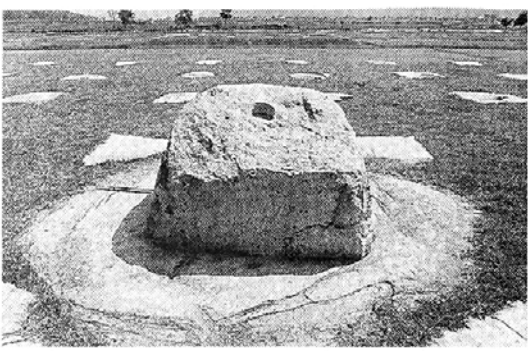
박정희대통령 당시 항통사복원을 추진하려다 그만 둔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확실한 고증없이 항통사 9층탑을 새로 조성한다는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코 7백여년의 세월을 견뎌낸 항통사탑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항통사를 복원하겠다는 새로운 장소를 탐색해 21세기의 항통사를 조성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자료수집·연구 '선결과제'

이강근(경주대 문화재과 교수)

항통사나 미륵사의 복원은 종교를 통한 민족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최근의 항통사 복원과 관련한 정치권의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복원은 원형의 복구를 의미한다. 원형추정 작업없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석굴암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로서는 최상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항통사의 복원은 4~5년안에 이뤄지는 일이다. 우선 항통사 건물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복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항통사 복원을 위한 전문기법단의 위원회를 구성, 최종적인 복원 설계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복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항통사 복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에 매진해야 할 때다.



경주 항통사지의 9층탑 주춧돌.



익산 미륵사지 전경.

정치권 복원추진 '시사'

항통사 신라 호국사상 구심역 미륵사 백제 최대의 미륵도량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항통사(경북 경주시 구황동, 사적 제6호)와 미륵사(전북 익산시 금마면, 사적 제150호)가 과연 복원될 수 있을까. 항통사는 569년 창건된 신라 화엄도량의 구심점이며, 미륵사는 641년 창건된 백제 최대 미륵신앙 산실이다. 최근 대권주자들이 이들 사찰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다 문화비전2000조직위원회가 추진 검토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신한국당 이회창총재는 지난10월초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사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대정부 국정질문에서 이들 사찰의 고증과 복원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95년 항통사복원계획을 진행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96년5월 KBS가 컴퓨터그래피기술을 활용한 '영사복원-항통사'를 방영 복원어원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 결국 항통사 미륵사 복원은 호국불교의 상징을 재현해 종교적 기능과 함께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호국바탕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약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학회는 이들 사찰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확한 설계자료를 전해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 설계로 복원하는 것은 올바른 문화재 관리가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호재)도 7~8일 열린 전국대회에서 전회원의 결의로 문화비전2000 위원회의 항통사 9층탑과 미륵사 복원계획을 재고 하라고 요청했다. 확실한 기초자료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위영란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담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가(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1 성지관음회 (회장 혜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전에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판들 모두 걸어버리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전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고통과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병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1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의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入室寫經의 殊勝을 위하여 승진·사법원정의 殊勝을 위하여 안성지방 佛敎진흥회의 諸位의 殊勝을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족을 시정정근하여서도 神妙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生命,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통진도 가능) ● 선착순 한정판(품)·주문 신정법법 ● 선착순 주문하시면 골 보내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성준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서울미술계 실사위원장(서예) · 문화한국 서법교육학회총회 국립공공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을 수상 · 중국 대만 화교청년 고등부 서법위원회대표 실사위원장 · 대한민국 9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실사위원장 · 대만 국립공공박물관 소장 물품(70만원)조각품은 발표 · 고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인 회장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